

‘시즌 3승 수확’ 류현진, 한·미 통산 160승 일궈냈다

애틀랜타전 선발 7이닝 1실점...토론토 4-1 승

평균자책점 2.95...94개 투구해 63개 스트라이크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시즌 3승을 수확했다.

류현진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5피안타 1볼넷 1실점을 기록했다. 홈런 하나를 맞았지만, 삼진은 6개를 빼앗았다.

팀이 4-1로 이기면서 류현진은 시즌 3승(2패)째를 따냈다. 지난 7일 오 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 시즌 2승째를 거둔 후 2연승이다.

이날 승리로 한·미 통산 160승을 일궈냈다. KBO리그에서 98승을 올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62승을 기록 중이다.

올 시즌 한 경기에서 7이닝 이상을 책임진 건 지난달 8일 텍사스 레인저스전(7이닝 2실점) 이후 두 번째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2.95로 끌어내렸다.

투구 수는 94개. 정교한 제구력을 뽐낸 류현진은 이중 63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아 넣었다. 포심 패스트볼 30개(32%), 체인지업 25개(27%), 커터

22개(23%), 커브 17개(18%)를 섞어 던졌다.

출발부터 순조로웠다.

1회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를 커터로 헷스윙 삼진 처리하고, 프레디 프리먼을 조구에 유격수 뜬공으로 돌려세웠다. 2사 후 마르셀 오수나에게 중전 안타를 내줬지만, 오즈하이노 알비스에 3루수 땅볼을 유도해 이닝을 끝냈다.

2회에는 첫 타자 오스틴 라일리리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낸 뒤 덴스비 스완슨, 윌리엄 콘트라라스를 연거푸 삼진으로 처리했다. 스완슨과 풀카운트 승부에서 몸쪽으로 꽂아 넣은 8구째 직구로 루킹 삼진을, 콘트라라스에게는 체인지업으로 헷스윙을 이끌어 냈다.

3회는 공 10개로 끝났다. 선두 크리스티안 파체를 커터로 헷스윙 삼진을 잡아냈다. 후속 맥스 프리드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지만 아쿠나 주니어를 중견수 뜬공, 프리먼에게 삼진을 빼앗았다.

순항은 계속됐다. 4회 첫 타자 오수나를 중견수 뜬공을 잡은 류현진은 후속 알비스에 가운데로 직구를 던졌다

가 중전 안타를 허용했다. 하지만 라일리와 스완슨에게 연속 땅볼을 유도하며 이닝을 정리했다.

유일한 실점은 0-0으로 맞선 5회 나왔다. 선두 타자 콘트라라스에게 던진 3구째 낮은 체인지업이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로 연결됐다.

선제점을 내준 류현진은 흔들리지 않고 파체와 프리드를 각각 땅볼, 뜬공으로 돌려세웠다. 아쿠나 주니어에게 이날 첫 볼넷을 허용했지만 계속된 2사 1루에서 프리먼을 3구삼진으로 잡아냈다.

침묵하던 토론토 타선은 곧바로 6회초 동점을 만들었다. 볼넷으로 출루한 캐빈 비저어를 마커스 세미언이 좌익수 방면 2루타로 불러들였다.

1-1로 맞선 6회말 마운드에 선 류현진은 다시 패투를 펼쳤다. 오수나와 알비스를 연속 땅볼로 정리한 뒤 라일리에게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맞았다. 그러나 스완슨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고 이닝을 끝냈다.

토론토는 7회초 테스오카 에르난데스의 중월 솔로 아치로 2-1로 역전했다.

이날 처음으로 앞선 상황에서 7회말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콘트라라스를 중견수 뜬공, 파체를 2루수 뜬공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12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빠르게 아웃시켰다. 대타 에이프리트 리안자도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류현진은 8회초 대타와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 마운드를 이어받은 타일러 헛우드와 A.J. 폴은 각각 1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지켜냈다.

토론토 타선은 마지막까지 힘을 냈다. 2-1로 앞선 9회 1사 1루에서 에르난데스가 다시 한번 왼쪽 펜스를 넘겨 4-1로 승리를 쟁취했다. 이날 류현진은 LA 다저스 소속이던 2019년 10월 7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이후 1년 7개월 만에 타자로도 나섰다. 3회 삼진을 당한 류현진은 5회 2볼-2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커브에 헷스윙해 삼진으로 물러났다.

뉴스

페퍼저축은행, 광주광역시 연고지 협약 체결

광주 유소년 배구 발전 기금 1억원 약속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광주단장 장매우)이 13일 광주광역시와 연고지 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광주광역시를 연고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페퍼저축은행 장매우 대표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페퍼저축은행은 광주광역시를 페퍼저축은행 배구단의 연고지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본 행사에서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유소년 배구팀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의 지원금을 광주광역시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4월1일 광주시가 한국배구연맹에 연고지 유치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페퍼저축은행은 광주시와 연고지 선정을 위한 관계자 실무 협의 및 홈구장 현장실사를 한 달여간 실시했다.

페퍼저축은행 여자프로배구단은 광주광역시체육관을 홈구장으로 두고, 오는 10월 개막하는 2021~2022시즌 V리그에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체육관은 약 9000명이 수용가능한 실내체육관으로, 지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른 바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3월 22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여자프로배구단 창단 의향서를 제출하고, 4월 20일 한국배구연맹의 승인을 받아 프로배구리그 10년 만에 여자프로배구 7번째 구단을 창단했다. 4월 22일 김형실 전 여자배구 국가대표 감독의 감독 선임을 시작으로 이성의 코치, 이경수 코치, 이영수 코치를 발탁하며 현재 선수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 장매우 대표는 “광주 배구팬의 뜨거운 열망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시장,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이병훈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열정에 감명받아 광주시를 연고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고, 광주시를 연고지로 최종 확정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광주시의 우수한 지역 배구 저변을 기반으로 유소년 배구팀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배구 연고지인 광주에서의 사업도 확장하며 고용 창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프로스포츠는 경기력과 함께 ‘연고지’와 ‘팬심’이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며 “페퍼저축은행 배구단이 호남의 중심인 광주로 온 것은 탁월한 선택이며, 이제 광주시와 함께 나아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프로농구 DB 김태술 은퇴...“과분한 사랑, 간직하고 살 것”

정규리그 통산 520경기 출전해 평균 7.7점 4.5어시스트

프로농구 원주 DB의 베테랑 가드 김태술(37)이 코트를 떠난다. DB는 13일 “김태술이 14년 프로 생활을 마감하고 정든 코트를 떠난다”고 은퇴를 발표했다.

부산동아고-연세대를 졸업한 김태술은 200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서울 SK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다. 데뷔 시즌 51경기에서 평균 34분 51초를 뛰며 10.7점 7.3어시스트로 신인상을 수상했다.

안양 KGC인삼공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2011~2012시즌 처음으로 챔피언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후 전주 KCC, 서울 삼성을 거쳐 2019~2020시즌을 앞두고 DB에 합류했다. 인삼공사에서 우승을 합작했던 이

상범 감독과 재회했다. 김태술은 정규리그 통산 520경기 출전해 평균 7.7점 4.5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통산 어시스트 7위(2335개), 스틸 9위(720개)다.

김태술은 “10분씩이라면 1~2년 정도 더 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만 건 아닌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잡아주고 아쉬워할 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은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도자는 당장 마음에 없으며 앞으로는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그동안 프로 생활을 하며 못봤던 여러 분야를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와주신 많은 지도자분들, 구단 관계자, 동료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무



은퇴보다 팬들에게 받은 과분한 성원과 사랑은 평생 간직하며 살겠다”고 작별을 알렸다.

뉴스

프로농구 챔피언 인삼공사, 김승기 감독과 2년 재계약

2015년 지휘봉 6시즌 이끌어 플레이오프 통산 70.6% 승률 손규완·손창환 코치도 합의

2020~2021 프로농구 챔피언 안양 KGC인삼공사가 김승기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다.

인삼공사는 13일 “김승기 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감독을 보좌한 기존 손규완 코치, 손창환 코치도 재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기간 외 조건은 상호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감독은 2015년 인삼공사 지휘봉

을 잡고, 6시즌 동안 두 차례 챔피언결정전 우승, 한차례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플레이오프에서 통산 70.6%의 높은 승률을 자랑하며 단기전에서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플레이오프 승률 1위다. 또 압박과 스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며 젊고 역동적인 팀 컬러를 구축해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김 감독은 “지난 6년 간 ‘6년근 인삼’을 재배하는 것처럼 몰입양면으로 지원해준 구단에 감사드린다. 더 큰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농구 인기몰이를 위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뉴스

‘KIA 루키 트리오’ 없었다면?

신인투수 이의리·장민기·이승재 같은 날 등판 ‘이례적’



(왼쪽부터) 이의리, 장민기, 이승재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KIA 타이거즈에 루키 투수들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조금씩 상상불가의 질문이 되고 있다.

KIA 마운드는 지난 12일 LG 트윈스와의 광주경기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2021 신인투수 3명이 한꺼번에 마운드에 오른 것이다. 개막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한 경기에서 신인투수들이 3명이나 함께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1차 지명자 선발 이의리는 3회까지 완벽한 투구를 했다. 그러나 4

회 야수들의 실책 2개가 나오며 고전했고, 제구가 흔들리며 3실점했다. 그대도 5회 2사까지 막고 경기를 마쳤다. 승리 요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3실점으로 막았다.

3-3으로 팽팽한 6회 좌완 장민기가 등판했다. 2차 2라운드에서 낙점받은 고졸 루키이다. 팀 타선에서 신인투수들이 성공했고, 승리를 안았다. 데뷔 두 번째 구원 승이다.

7회는 2차 3라운드로 입단한 대졸루키 이승재의 시간이었다. 오지

환 우익수 뜬공, 라모스 중견수 뜬공, 채은성 3루 땅볼로 잠재우고 가범게 7회를 넘기고 홈드를 행했다. 150km의 강속구가 돋보였다. 허리통증을 딛고 돌아와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장민기와 이승재는 전날 경기에도 나란히 등판해 7-1 승리를 이끌었다. 5-1로 앞선 5회 1사 만루 위기를 잠재웠다. 장민기는 라모스를 선체로 삼진으로 잡았다. 바통을 이은 이승재는 김민성을 3루 땅볼로 유도하고 볼을 쳤다. 6회도 무실점으로 막고 구원승을 따냈다.

이의리는 최근 2경기 연속 5회를 넘지 못했지만, 선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민기와 이승재는 불펜의 필승조에서 활약도를 높이고 있다. 장민기는 새로운 좌완 옵션으로 10경기 2승1홀드, ERA 2.38, 이승재는 우완 필승맨으로 9경기 2승1홀드, ERA 3.60을 기록 중이다.

세 명의 루키가 없었다면 KIA 마운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선발과 불펜이 모두 붕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앞으로 마운드에 오르면서 부침을 겪겠지만, 모두 성장 과정에서의 좋은 공부이다. 그래서 2021 KIA 신인 농사는 풍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